

불자 세상보기



윤제철
前 한국대학불교연합회
총동무회 회장

불교는 150명, 개신교는 1만여명
지난 6월 24일부터 4박 5일간 강원도
평창에서는 한국대학불교연합회(KCCCC,
개신교 계통)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네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수련회에는 국내
350개 대학에서 1만여 청년들이
모였는데, 기독교 신자가 아닌 대학생
900여 명과 350여 외국 대학생들도
함유했다. 이들은 수련 기간 중
성경공부와 함께 LTC(지도자 훈련 과정)를
연수하고, 수련회가 끝난 후에는
팀별로 전도순례를 떠났다.
한편 올해로 창립 50주년이 되는
한국대학불교연합회(대불련)는
지난 8월 17일 창립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뒤
동국대학교 일원에서 3박 4일간의
여름캠프(Young Buddhist Camp)를
열었다. 'Let's Go! 빛나는 청춘'이라는

대학생 포교, 동문 선배들이 잘해야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에서 약 15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저명한 철학자와의 토크파티를 갖는 등
주요인으로서의 삶, 붓다로서의 삶을
함께 깨쳐가는 심신수련의 기회를
가졌다.
대불련의 여름캠프와 KCCCC의
여름수련회는 우리나라 양대 종교의
대표적인 대학생 수련활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2.8%인 1070만 명의 신도수를
지향하는 불교계의 수련 참가자가
860만명(18.3%)의 신도를 가진
개신교의 몇십 분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 기성세대는 그 동안
대학생 포교를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KCCCC는 (세계)대학생선교회(CCO)의
한국 조직으로 1958년 김준곤 목사의
원력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개신교
계통의 초종교적 조직을 구축해
국내 각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캠퍼스의
복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포교조직에는
개신교 각 종파와

교회와 각 대학 CCC 동문들과
각계각층의 유력한 신도들이
참여하여 포교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대학생 포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범불교적 대학생 전방구 있어야
한다
대학생에 대한 불교 포교는
불교계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호국 불교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화랑도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심신을 단련해 삼국을
통일했고, 임진왜란 때 젊은 스님들은
의병 중에 가장 치열하게
왜적과 맞서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1980년 대에는
대불련을 중심으로 한 젊은
분자들이 민중불교운동을
전개하여 민주화의 기틀을
다졌다.
개신교의 포교정신과 포교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포교가
중요하고, 이 포교에 범불교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불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사는 대불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불련은 50년 전에 창립되어
지난 반세기 대학생 포교의
중심에서 왔기 때문이다.
대불련의 수련 참가자가
150명에 불과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
역량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이렇다 할 지원기구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1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불법을 배우겠다고
발심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야
한다.
이에 필자는 제안한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KCCCC와
같은 범불교적인기구를
설치해 대학생 포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대불련은 지난 8월 17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학생전방센터 설치의
구상을 밝힌 바 있거나와
조계종은 종파를 초월한
대승적이고, 전폭적인 힘을
써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불사가 성과를
거두려면 국내 모든
종단과 신도와 신도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행해야 할 것이다.

社說

사회는 조계종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수좌 스님들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조계종 총무원 청사 인근에
좌복을 낮다. 전국
선원수좌회가 결성한
대책위원회가 8월 29일부터
무기한 묵언 정진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 수좌 스님들은
매일 4차례를 묵언 수행하게
된다. 정진의 기한은
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의
연임을 저지할 때까지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도
수좌 스님들의 정진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현재의 조계종은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다.
불교광장은 분열됐고,
舊 무량화와 무차회,
백상도량(보림회)가 3차
연대를 구성하고 前
총회의 장 보선 스님을
후보로 추대했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두 종책 세력 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중들은
분열한다.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의
폐해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종책을
거두는
선거가
아닌
인물·문종
위주의
정치
공학적
선거가
될
경우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적지
않은
종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그
결과를
떠나
흠결없는
후보가
여법하고
공정하게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누굴
뽑느냐가
관건인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여법한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선거가
돼야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종단
행정
수반에
걸
맞는
자질과
수행력을
검미한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
이런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선원
수좌들이
나선
것으로
생각한다.
백적간두에
선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
조계종을
사회
는
주목하고
있다.
폭로와
비방,
법계의
수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정한
선거가
급선무다.
이는
올
하반기의
조계종
사부대중의
화두다.

1년 맞은 조계종 노동위, 발전하려면

지난 8월 27일로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창립 1년
맞았다.
노동위원회는
창립만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했던
불교계에
큰
이슈가
됐다.
실제
노동위원회는
1년
간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학습자
노동자
등
전국
노동현장을
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위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및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올해
초
개원한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은
상처받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민을
듣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각주
이러진
동사설
법회도
노동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동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
불교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종단과
불교계
안에서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논의된
바
없다.
실제
열악한
불교계
노동환경에
대해
노동위는
비정규직
현황조사
과역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교계
노동인식은
미약한
것도
문제다.
한
노동위원
스님에게
문종
어른
스님이
"너
'빨갱이'
냐"
라고
물었다는
웃지도
못할
일화는
불교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듬고
도와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할
역할
중
하나다.
또한
불교계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후생과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도
한국불교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노동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안정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발언대

청소년 자살 급증 해법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가 이슈가 된지 오래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159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 서울시 청소년 중 26%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로 고민하다 자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청소년 심성 개발 지원 시급



인경 스님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청소년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은
학력, 성취 위주 사회에 있다.
청소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학력구조가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유지해야한다는
강박과 불안감에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처럼 자살을
생각한다.
불교계에서는 청소년 심성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살, 폭력, 왕따 등의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불교명상을 가르쳐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도 부족하고
청소년들한테 특화된
심리 복지 시설도
많지 않다.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아직은
초보수준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된다.
우선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운영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감성이
예민하고
철학적인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은연중
آوری
가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으면
한다는
것이다.

마음 다스리는 교사 모임 필요



이수경
동국대 불교이동학과 교수

사회가 점차 경쟁이 심화되며
청소년기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세계에서
청소년들이
학업경쟁을
비롯한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교사·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에
몰입하는
것을
강조할
뿐이지
아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치우쳐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화,
불안함,
고통을
덮지
않고
털어놓아야
한다.
주변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안듯이
아이들을
보듬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사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교육과
연수
등에
명상과
심리상담
등을
함께
배우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
전
1-5분
가량
아이들의
호흡과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명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어른들이
가져야
한다.
먼저
교사와
학부모들이
명상과
심리상담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에게 불교 교육해야



우인보
조계종 교법사 단장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교육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찾아
준비하고
공부하기
보다는,
부모의
과다육신과
대리만족을
위해
등
떠밀려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는
각자에게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한다.
그것이
곧
불교적
교육법이다.
학부모들이
먼저
불교적
교육법,
불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
것이
무엇인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
개인이기주의와
가족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기복적
불교만
민개
된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중심이
잡히지
않게
되고,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
모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를
마련하고,
불교계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불교적
교육법'을
가르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부산지사: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뭐여 넣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전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문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박경수 010-9819-83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형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